

요한계시록

개요

저자: 사도 요한 - 내적(內的) 증거(계 1:1, 2, 4, 9, 22:8)

연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제2차 박해(AD. 91-96) 기간 중 씌여진 책이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제11대 황제 도미티안 때에 가장 극심했다. 그 이후 AD. 250년까지 약 20년 간 격으로 모두 10여 차례의 박해가 이어졌다. 그들은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선전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다.

기록 목적: 『고난 받는 교회를 위한 격려, 위로의 서신(격려, 위로, 승리)』이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신 선지자적 메시지(prophetic message)이다.

때는 로마의 제11대 황제 도미티안(AD. 81-96)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한 후였고, 사도(使徒)로서는 『요한』만 홀로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성도들과 교역자들은 극도로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 당시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순교(殉教)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며 조바심하였고,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再臨)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하였다고 속단하기도 하였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이렇게 떨고 있던 성도들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알려줌으로써 첫째,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박해를 능히 이겨내게 할 뿐 아니라 둘째,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의 궁극적 승리,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게 하려 함이었다(계 1:19).

요한계시록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줌으로써 고난받는 성도들과 교회로 하여금 격려 받고 위로를 얻으며, 승리의 확신 가운데 그 모든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묵시(默示)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구속 역사의 성취와 완성을 가르치는 책(冊)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늘의 성전은 건재(健在)하다.

아울러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권력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靈的) 전투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印封)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명하였다(계 22:10). 즉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밝히 깨달아 믿음을 강화하라는 뜻이다.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 같으나, 그 모든 박해는 엄위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역사를 주재(主宰)하고 주관(主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임금들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견고하다. 우리는 모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다.

(계 19:9)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 내용

(계 1:11)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 1: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를 말한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豫言)하는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전(創世前)부터 종말(終末)까지 『현재/과거/미래』가 영원(永遠)부터 영원(永遠)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된 책 곧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성취와 완성을 말씀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연대기적인 순서(順序) 곧 시간적 배열 순(順), 역사적인 순서(順序)로 읽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기록 형식

예언서/서신서/묵시문학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2: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묵시)라

요한계시록은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와 같은 『묵시문학』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묵시문학』은 공간적 초월(요한계시록은 『하늘/땅의 나선형 순환구조』로 기록되었다), 시간적 초월(종말)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초월(超越)을 경험하는 주체(主體)는 교회(教會)와 성도(聖徒)들이다.

사도 요한은 그가 『환상(vision - graphic)』으로 본 것을 『글』로 썼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요한이 사용한 『상징언어 - 그래픽(graphic)』을 복원(復元)하여 『그림언어』로 읽는 것이 유익(有益)하다.

일곱 인(제5장, 6:1-8:1)

-----> 일곱 나팔(8:2-제11장)

-----> 일곱 대접(제15-16장)

* 제7장은 여섯째 인(印)과 일곱째 인(印) 사이에 끼워있는 삽입장(插入章)이다. (계10:1-11:13)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삽입(插入) 부분이다. (제17장-제19장 제10절)은 대접 재앙에 추가된 삽입장(插入章)이다.

제12-14장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끼워있는 삽입장(插入章)이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시간적(時間的)인 순서에 따라 배열(配列)된 것은 아니다. 이 환상들은 영원(永遠) 속에서 『현재/과거/미래』가 하나의 그림으로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 환상들을 『시간적 배열 순(順)』, 『역사적인 순서(順序)』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요한계시록을 『시간적 배열 순(順)』으로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역사 속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입(代入)시키는 세대주의(世代主義, *dispensationalism*)의 오류(誤謬)에 빠지게 된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

종말론: 요한계시록은 종말(終末)을 다룬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初臨)으로 종말은 시작되었고 주의 재림(再臨)으로 종말은 완성된다(계 1:1).

기독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교회의 머리이시다(계 5:5-7).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기독교론(Christology)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이다.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곧 십자가의 구원으로 성도들의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였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모든 교회 곧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주신 편지이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책이다.

종말(終末)에 대한 바른 이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5)

종말은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다.

종말은 창조의 완성이며 만물이 새롭게 되는 소망의 시작이다.

(사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6:22)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벧후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 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萬物)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信實)하고 참되니 기록(記錄)하라 하시고

(계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 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종말(終末)의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때와 기한을 짐치는 것은 이단(異端)이다.

(마 24: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 24: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행 1: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단(異端)들은 모두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인 『종말론』, 『기독교론』, 『교회론』에서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건전한 『종말론』, 『기독교론』, 『교회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사도 요한 같이 종말(終末)을 소망(所望)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구조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계 1:1-8)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계 1:9-제3장)

천상교회(天上教會)의 예배(제4-5장)

일곱 인(제5장, 6:1-8:1)

여섯째 인(印)과 일곱째 인(印) 사이에
제7장이 삽입장(插入章)으로 끼워있다.

일곱 나팔(8:2-제11장)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제10:1-11:13)이 삽입(插入)되어 있다.

제12-14장

요한계시록은 카이즘 구조(Chiasm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 제12-14장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 사이에 끼워있는 삽입장(插入章)인데 요한계시록 카이즘 구조(Chiasm Structure)의 산봉우리에 해당하는 중심 메시지(message)이다. 그 메시지(message)는 성도들의 구원(救援)에 관한 소식 곧 복음(福音)의 메시지이다.

일곱 대접(제15-16장)

(제17장-제19장 제10절)은 대접 재앙에 추가된 삽입장(插入章)이다.

최후의 심판(제19-20장)

결론: 새 하늘과 새 땅/하나님 나라의 완성(제21-22장)